

#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앞장'

### 두세훈 도의원, 전북도 규제혁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북도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심사절차를 구체화한 조례가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두세훈(안주2)의원이 제367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규제심사 청구, 예비심사 등 규제심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개선권고, 기존규제의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고, 공동위원장 1인은 민간인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둘째, 규제개혁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 위원회가 심사결과

에 따라 관련 실국·장 등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등을 철회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두세훈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주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도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일안통과 돼 2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농산업경제위원회, 신중양시장 방문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방안 모색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전라북도 우수상품관 판매장 및 신중양시장을 방문 현지의 정황을 펼쳤다. 전북도 우수상품관 판매장은 1992년 9월 한옥마을 내 판매장을 시작으로 전북권 3개소 및 수도권 1개소를 (사)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기업협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 내 70여 개사의 500여 품목을 판매 중에 있다. 전주신중양시장은 전주시청에서 500여m 떨어진 전주 중앙지역에 60~70년대부터 상인들이 하나 둘 모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전통재래시장으로, 1983년 개장한 전주교야백화점과 함께 지역 상권을 주도하였으나,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의 대형유통매장이 들어서면서 이용객들이 대폭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시설 현대화, 주차시설 확충 등)을 통해 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재래시장의 명성을 회복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전북도 우수상품관 및 신중양시장의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강용구 위원장(남원 2)은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가 전라북도 우수상품관 판매장 및 신중양시장을 방문 현지의정황을 펼쳤다.

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근 위원(전주 2)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소비자가 구입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구매하고 싶도록 상품소개 등에 최선을 다 해주길" 당부했고, 최영심 위원(비례)은 "전라북도 상품이 많이 판매되어야 우리 도 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므로, 손님들이 다시 찾

을 수 있도록 전북도민의 정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길" 당부했다. 이번 현지 의정활동을 계기로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전라북도의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전북도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도내 헌혈 권장활동 적극 지원 근거 마련

### 김이재·이병철 의원 공동발의

전북도의회 김이재(행정자치위원회, 전주4), 이병철(환경복지위원회, 전주5)의원이 제367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도내 헌혈 권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조례안은 헌혈자를 도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하는 등 헌혈자

에 대한 예우, 헌혈 권장 활동 효율적 추진을 위한 홍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이재 의원은 "최근 개인 및 단체 헌혈 감소로 혈액 수급이 부족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헌혈 권장 활동을 장려·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병철 의원은 "도내 혈액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관련 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촉구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돼 2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드론 전문교육센터 성명서 발표하는 전북도의회 의원들. 이명연 전북도의회 의원과 전라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은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LX 드론 교육센터 경북 유치 추진 반대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경제 활력 도모

###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전북경제 체질 개선 위한 스터디 개최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경제 체질 개선 모색을 위해 22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C)에서 네 번째 스터디 모임을 이어갔다.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자체 스터디 결성을 시작으로 경제·산업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 등의 스터디를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스터디는 제3회 자동차·뿌리 기술 융복합 협업페어와 연계하여, 상용차사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구축이라는 주제로 자동차융합 기술원 노윤식 미래기술연구본부장을

초청하여 특강을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및 완성차 생산량 감소 등으로 전북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에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추진되는 상용차사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차 산업 전망과 발전전략 등을 살펴보고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은 "전북 자동차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도내 집적화된 기업과 연구원, 대학 등이 모두 협력하여 튼튼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강용구 위원장은 "상용차산업 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을 통해 핵심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 회복과 전북지역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철수 부위원장장은 "도내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새만금 지역에 자동차 관련 기업 집적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에 선순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진행 일정에 맞춰 세계 공정무역, 전라북도 제조산업, 상생형 일자리, 홀로그램, 농식품 기술생태계 조성 등 도정 현안 및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민주당 전북도당, 지역주도형 발전 논의 민심청취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문재인 정부의 분권과 혁신,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도형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심 청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당은 22일 도당 회의실에서 노동·교육·농어민 단체와 위생, 약학 분야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전북소재 혁신기관과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 도내 직능별 단체들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일환이다. 23일에는 보훈, 보건복지, 노인, 장애인, 경제 산업, 국토교통단체 등 100여개에 달하는 도내 시민사회 및 직능단체들과 간담회를 이어간다. 도당 측은 내년 처리될 2대 총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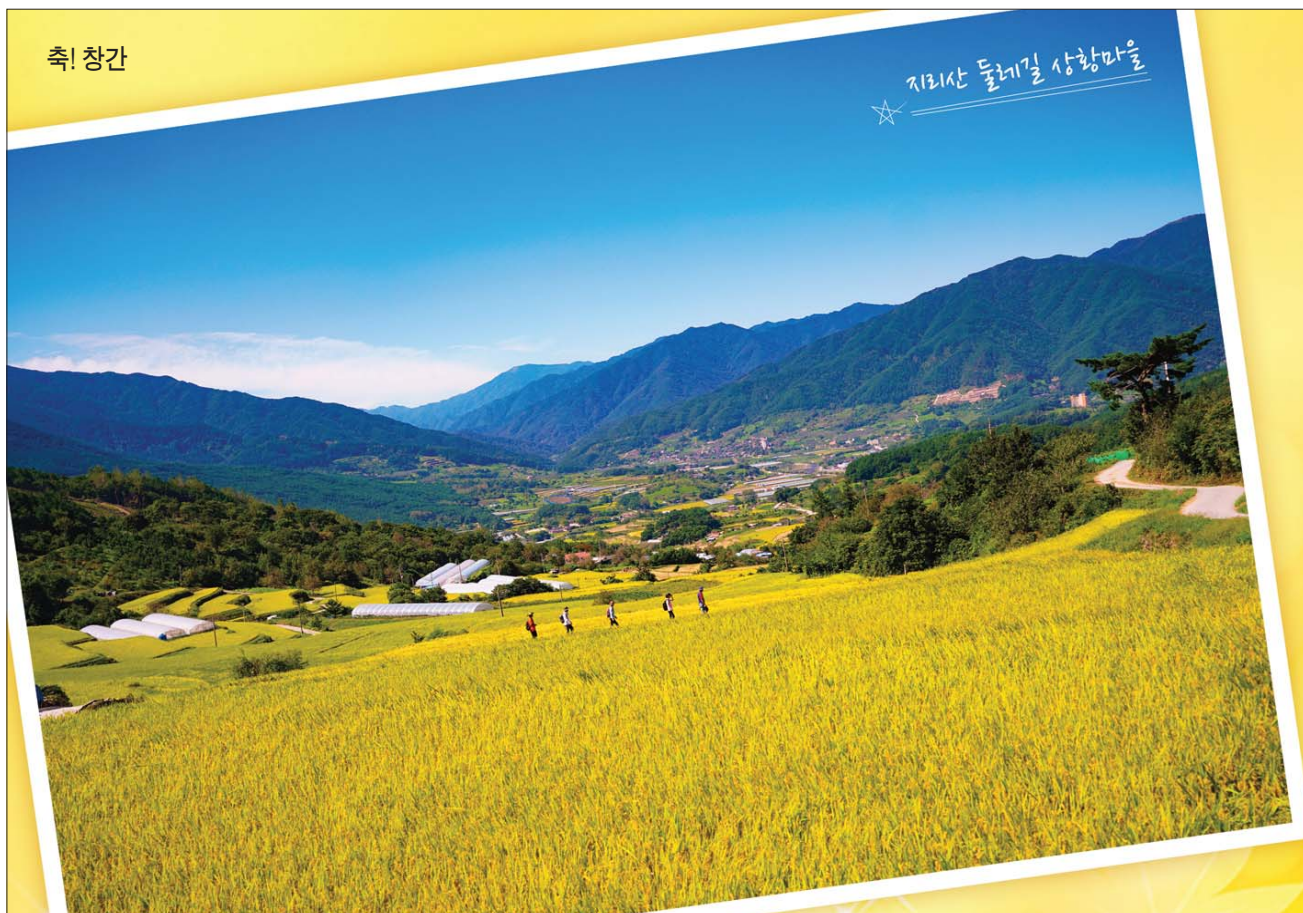
앞두고 전북의 민심을 확인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각 단체별 건의 사항들을 취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노인과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 단체나 복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당 차원의 정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팀을 구성, 특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취합된 각종 방안들을 중앙당과 정부에 전달, 총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전북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현장에서 도민들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도민들과 함께 지역주도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정례적인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도민 행복을 추구하는 정당의 자세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축! 창간

지리산 둘레길 상항마을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몸을 맡기다 보면,  
내가 있는 곳이  
시작이 되고, 끝이 된다.

지리산 둘레길,  
시작과 끝은 남원입니다.

